

 인천광역시	보도자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2월 5일(일) 총 2매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담당자	• 도시농업교육담당 송옥영 ☎440-6945 • 담당자 전에서 ☎440-6947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텃밭 가꾸며 학습능력 쑥쑥! 초등 교육학교 모집
-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과목 연계 텃밭프로그램 운영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농업기술센터에서 2월 22일부터 3월 2일까지 인천시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능력 향상 원예 활동교육’에 참여할 학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습능력 향상 원예활동교육’은 교과목과 연계한 다양한 텃밭 체험 활동을 통해 초등학생의 창의성과 인성을 함양하고,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이다.

교육은 4월부터 7월까지 진행되며,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텃밭 전문강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 교내 텃밭을 활용한 농업 이론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과정은 학급별 8회 과정으로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초등교과 연계형 텃밭 프로그램 「텃밭에 다 있네」를 적용해 씨앗과 모종 심기, 텃밭 가꾸기, 작물 수확하기, 친환경 농업활동 등 다양한 원예활동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교육 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인지영역(이성적 사고, 분석 능력 등)이 22% 상승했고, 과학·실과·국어·미술 등의 학업성취 향상, 생명의 소중함과 환경문제, 생태학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교육생 모집 관련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교육팀(☎032-440-6947)으로 문의하면 된다.

조영덕 인천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어린이들이 직접 식물을 심고 가꾸는 체험을 통해 식물에 관한 관심과 친밀감을 높이고 호기심과 창의성, 인성을 길러줄 수 있는 현장 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붙임> 텃밭프로그램 운영 사진

